



# 평협소식

2007 제10호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 777 2013, 757 7851 FAX 02 778 7427

<http://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07. 9. 3 발행인 : 한홍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평협,  
순교자 시성시복운동에 적극 나서기로  
2007년도 제 2차 상임위원회  
원주교구 배론 성지에서 열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8월 31일~ 9월 1일 원주교구 배론성지(충북 제천시 봉양읍)에서 올해 두 번째 상임위원회를 열고 평신도 교육 실태조사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다.

각 교구 평협 회장단과 상임 단체장들인 상

임위원들은 이날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 총무 민병덕 신부) 위원,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들도 함께 한 가운데 원주교구장 김지석 주교로부터 따뜻한 격려를 받았다.

한홍순 회장은 인사에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와 함께 하는 평신도 교육실태 조사에 따른 세미나도 개최하는 만큼 그 의의가 매우 크다”며 끝까지 마음 모아 토의에 임하자고 말했다.

두 차례의 미사 강론을 통해 염수정 주교는 “한국 사제들의 귀감인 ‘하느님의 종’ 최양업 신부의 유해가 묻혀 있고, 1801년 신유박해 때

## 싣는 순서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한국평협 회원 단체〉

- 마리아 사업회(포콜라레 운동)
-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동정
- 교황님의 가르침

‘백서’(帛書)를 써서 교회 재건을 도모하려다 능지처참의 형을 받고 순교한 황사영의 자취가 남아있는 이곳 배론에서 회의와 세미나를 열게 된 우리는 신앙 선조들의 순교정신을 이어받아 각자의 삶 안에서 사도직 수행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날 개막미사는 염수정 주교와 민병덕 신부, 원주교구 사목국장이며 원주교구 평협



▲ 개막미사를 집전하는 염수정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주교 담당사제인 박

상용 아우구스티노 신부와 배론성지 주임 여진천 폰시아노 신부, 그리고 서울대교구 사목국 일반교육부 이준성 요셉 신부(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가 공동 집전했다.

#### 평협 40주년 준비위, 생명사랑 특위도 가동

15개 평협 중 14개 평협이, 8개 상임단체 중 4개 단체(한국성령쇄신봉사회, 경제인연합회, 한국ME, 성 빙첸시오 아 바오로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 재정, 선교, 노년, 도농, 생명·환경분과 등 6개 분과위원장들이 함께 한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 2008년으로 다가온 평협 설립 4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한국평협 회장단으로 구성하고, 제3차 상임위원회(11월 2일) 전까지 준비위원회(회장단)가 의견을 수렴해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하느님의 종’ 124위 순교자와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운동 – 1984년에 시성된 103위 성인 외에 ‘윤지충 바오로 와 동료 순교자’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등 125위 ‘하느님의 종’들을 대상으로 한 시복시성운동에 평협이 좀 더 적극으로 기도하고 노력하기로 했다. – 평협 내에 시복시성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방안은 회장단이 논의해



▲ 제2차 상임위원회의 참석자들이 배론성지 앞마당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 결정하도록 했다.

● 생명존중 캠페인 ‘생명사랑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 지난해 2006년 7월 상임위에서 ‘생명사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한국평협은 올해 제3차 상임위원회를 11월 2일 (금) ~ 3일 (토) 광주대교구에서 개최하며, 이날 ‘한국교회와 평신도사도직’ 주제의 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발제는 노길명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기로 했다.

## 평신도 교육실태 조사를 위한 세미나 ‘친교의 교회상 구현을 위한 노력 따라야’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소장 오병선)가 추진하고 있는 ‘평신도 교육실태 조사’ 중간 점검을 겸한 이번 세미나에서 평신도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평신도들이 성직자, 수도자들과 더 잘 협력함으로써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강조한 친교의 교회를 실현하고 교회 생활을 더 잘 하기 위해 봉사자들에 대한 의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염수정 주교는 이날 ‘평신도와 교육’ 이란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친교의 교회’에서 크게 요청되는 것이 하느님 백성 사이의 보완적 요소라고 지적하고, 평신도 교육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궁리하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염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제시하는 이 새로운 교회관에 따르면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를 망라하는 모든 하느님 백성은 성화(聖化) 소명을 받았으며, 똑 같은 품위를

지녔지만 성령께 받은 서로 다른 은사와 직무에 따라 복음화 사명에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하도록 불렸다”고 지적하고, 요컨대 평신도는 “교회의 살아있고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소명의 ‘세속적 성격’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희망과 사랑의 표지요 원천으로서 세상의 모든 분야에 현존하게 된다”면서 “이러한 풍부한 친교의 교회론이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 특히 평신도의 지속적인 교육과 이들 각자의 성화 소명에 대한 근본적인 응답이 절실히 필요하며, 오늘날 우리 교회 평신도들의 교육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 〈발제〉



▲ 오병선 소장

이어 오병선 소장의 사회로

- ◆ 평신도 교육과 활동(민병덕 신부 / 주교회의 평신도 사도직위원회 총무)
- ◆ 신심 단체를 통한 평신도 교육의 현황과 미래=ME교육을 모델로=(이윤식 위원 /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 ◆ 중장년의 신앙단계별 인재양성을 위한 탐구적 모델(조은상 위원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 한국 가톨릭교회 평신도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방안(오용석 위원 / 경성대학교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 ◆ 가톨릭신자의 평생교육을 위한 제언(정찬남 위원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교무처장, 사회교육원장)의 순서로 발제가 있었다.

민병덕 신부는 ‘평신도 교육과 활동’에서

2005년과 2006년 주보에 나타난 서울대교구 본당 사목활동 내용을 검토했다.

▲ 민병덕 신부  
이어 이윤식 위원은 ‘신심 단체를 통한 평신도교육의 현황과 미래=ME교육을 모델로’에서 “지금까지의 교육은 대부분 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식전달 위주의 전수교육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인 가정규범이 확고하고 사회가 복잡하지 않은 시대에서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80년대 이후 40~50대 신영세자들의 양산으로 예전처럼 가정 중심의 가톨릭 전통의 맥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게 되었고, 세계가 급격히 변하고 사회가 점차 복잡해 지면서 신자들은 영원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또 이를 알고 있다 해도 새로운 발견과 조화시키는데 어려움

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 아윤식 위원 전인적이고 지속적인 체험교육으로서 전반적인 ME교육을 살펴본 다음 “ME교육은 청소년부터, 약혼 시절을 지나 ME경험 후까지도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분석하고, 세상의 모든 부부들과 가정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ME교육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부부와 가정들에게도 가톨릭 정신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훌륭한 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은상 위원은 ‘중장년의 신앙단계별 인재양

성을 위한 탐구적 모델’에서 “본당 차원 혹은 평협 차원에서 평신도의 신앙 단계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신앙단계에 걸맞은 평신도 양성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평신도의 신앙 수준 혹은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비하다”면서 중장년의 신앙단계별 평신도 양성모형을 기업의 인재양성 과정을 참조하여 탐구적으로 제시해 이후 좀 더 체계적인 연구 및 실증자료 등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조위원은 “양적인 교세의 확장 뿐 아니라, 질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평신도 양성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와 실천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분석하고, 13단계의 교육 과정을 예시하면서 평신도 양성 모형 개발을 위한 과제로서 ① 평신도 양성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② 평신도 양성의 틀(framework)을 만들며, ③ 평신도 양성 체계를 정할 것의 제안했다.

‘한국 가톨릭교회 평신도 교육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서 오용석 교수는 “서울대교구의 경우 2006년 교적신자 중 20%만이 주일 미사에 참여하고 본당활동 참여자도 20%에 불과하며, 전국적으로도 가톨릭 신자로서 강한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가 1987년 91.1%에서 2006년에 56%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교회의 평신도 교육에 대한 재점검과 새로운



▲ 조은상 위원



▲ 아윤식 위원



▲ 오용석 위원

교육방향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그에 따른 평신도들의 의식구조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는 교육이 되지 못하면 그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교회 공동화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유럽과 남미 교회의 공동화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지적한 오 위원은 “한국 천주교회가 전체 인구의 12%를 껴안는 하느님의 큰 공동체로 성장했으나 이러한 교세의 확장은 교회의 도시화와 도시 본당의 대형화, 신자의 고령화와 여성화, 사목의 세속화가 촉진되는 가운데 영적 성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양적 성장이었다는 점에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의 시대적 모습을 담아내고 보다 깊이 있게 영성에 대한 갈증을 풀어주는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화’를 이뤄내고,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춘 공식적 평신도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찬남 위원

‘가톨릭신자의 평생교육을 위한 제언’에서 정찬남 위원은 “신자의 평생교육은 신자로서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신앙인의 발달 단계를 구축해 성장 발달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신앙인의 가치를 잃지 않고 죽음의 순간까지 힘차게 나아가도록 믿음의 근본사항에 대한 계속학습을 통해 하느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며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교구 사목국, 본당, 평

신도사도직협의회 등의 교회 내외부에서 고유한 사명을 각각의 고유한 입장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개인과 단체에 속한 다양한 대상자들의 평생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신자들을 위한 평생교육 전담기구를 마련해서 대상별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질의응답〉

사회사도직연구소 연구위원들의 발제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나온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 ◇ 각 본당이나 교구에서 교육을 위해 전체 예산에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그 비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 ◇ 적어도 본당회장이나 사목위원, 단체장 등 봉사직을 맡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회장학교’ 같은 것도 바람직하다.
- ◇ 본당은 가정 중심이 돼야 한다.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이뤄져야 하고, 가정의 문제를 쉽게 내놓을만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
- ◇ 평신도들이 교육의 주체이고 대상자이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 양성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지도자는 사제밖에 없다는 인식도 문제이며, 신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시종식과 봉사직의 개방이 필요하다.
- ◇ 교육의 시스템의 연구가 필요하다. 재미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따라야 한다.
- ◇ 신자들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교육이 주일 강론인데, 사제들의 강론 준비가 더 잘

이뤄졌으면 한다. 교회 업무를 분담해서라도 강론준비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 평신도 교육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했으면 한다.

◇ 연구소에서 평신도 교육 방법을 첨단적인 것으로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다.

◇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교육받는 그룹이 구역·반장들인데, 교육을 필요로 하면서도 참여자가 적어서 폐강되는 사례도 있다.

◇ 성당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공간이 부족하다.

◇ ‘매일미사’ 책에만 의존한 나머지 성서 읽기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 체험을 통한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단계적 교육을 실시하는 운동 단체도 있다.

◇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강만 가지고는 곤란하며, 운동 단체들의 참여도가 높아야 한다. 그런 방법을 고안해내야 할 것이다.



▲ 2차 선교포럼 참석자들이 이강서 신부의 주제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번 포럼에서 각 본당 선교담당 사목위원과 구역·반장 등 250여 명이 참가해 열띤 선교의지를 확인했다.

이강서(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신부는 주제강의를 통해 “선교는 자신의 복음화를 통해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며, “하느님을 강요하기 보다는 스스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며 자신의 성찰과 변화를 강조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가난한 이들이 단지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며 친구로 지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모범”이라고 지적했다.

강의 후에는 신천동본당과 금호1가동 선교본당의 선교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한홍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으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발전할 수 없다”며 “선교포럼을 통해 복음화 2020운동의 결실을 앞당기고 선교를 위한 평신도의 역할을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평협은 지난해 6차례에 걸친 선교포럼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자신의 복음화가 먼저”

#### - 제2차 선교포럼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한홍순,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지난 7월 14일 오후 서울 광장동성당에서 선교에 관심 있는 신자를 대상으로 ‘선교포럼’을 열어 교구 내 복음화 2020운동의 달성을 위한 선교의식 고취의장을 마련했다.

‘가난한 이들과 선교’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을 통해 복음화 2020운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 했고, 올해는 3월 10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1차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 동서울지역(광장동)에서 선교포럼을 진행했고, 중서울지역(연희동, 9월 8일), 서서울지역(목동, 11월), 명동(12월)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10월 14일 선교대회 열기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선교에 적극 활동하고 있는 신자들을 격려하고, 아직 선교에 대해 미온적인 신자들에게 열심을 불어넣어 복음화 2020운동의 의미를 전하고, 교회의 사명인 선교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 명동성당 코스트 홀에서 ‘2007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 15)를 주제로 진행하게 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일하고 있는 신자들의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나누고, 각자가 살고 있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생활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평신도 사도직의 사명을 되새기게 된다.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 상임위원회, 교구장 주교님과 간담회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윤성 요한 비안네, 담당사제 김종기 세례자 요한 신부) 상임위원들은 지난 7월 9일 오후 7시 교구청 회의실에서 유흥식 라자로 교구장 주교를

모시고 간담회와 아울러 회장단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유주교는 “반갑다. 사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회장님의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다. 회장님, 부회장님들, 상임위원님들 모두 수고가 많았다. 바쁘신 중에도 평협의 역할을 맡아주심에 감사하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 올바른 신앙인으로 있어야한다. 나 역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며 몇 가지를 당부했다.

- ◊ 우선, 평협이 신자들의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연수, 교육 과정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 ◊ 신학교후원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 ◊ 교구 사목지표의 실천사항들을 실천하는데 노력해 달라.
- ◊ 책임을 맡은 평신도일수록 매사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시종 진지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평협 상임위원들이 교구와 교구 평신도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자리가 됐다. 간담회를 마치고 유주교와 즐거운 식사시간을 함께 했다.



▲ 간담회 후 유흥식 주교와 함께 기념촬영하는 대전평협 상임위원

## 대전 가톨릭언론인회, 이완구 충남도지사 초청 간담회 열어



▲ 대전 가톨릭언론인회 주최 이완구 충청남도 지사 초청 간담회 모습

베드로)는 8월 16일 CMB충청방송 협력으로 이완구 충남도지사 초청 간담회를 공주영상정보대학 스튜디오에서 마련했다. 오전 11시 30분 10명의 패널과 더불어 시작된 간담회에서 이완구 충남지사는 신양관과 취임 1주년 소회, 충남의 현안들에 대해 솔직하고 진지하게 답변했다.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변평섭 언론인회장은 “가톨릭언론인회는 같은 신앙을 가진 현직 언론인들이 현장체험을 서로 나누고 건전한 사회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단체이다. 오늘 간담회는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모시고 신양인의 입장에서 도청 현안과 신양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바쁘신 중에 초청에 응해주신 지사님께 감사하고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패널에는 가톨릭언론인회 소속 현직 언론인이 참여했다.

(변평섭 충청투데이 회장(가톨릭 언론인회 회장), 김효순 TJB 차장, 최순희 MBC 차장, 김점석 KBS 부장, 김동수 CMB보도국장, 원성수 CMB충청방송 진행자, 권오덕 대전일보 주필, 김선미 디트뉴스24 해설위원, 조성남 중도

일보 주필, 박진화 충청투데이 기자)

대전  
교구 가  
톨릭 언  
론인회  
(회장  
변평섭

## 제7차 상임위원회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8월 20일 평협 사무국에서 제7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평협이 주최하는 계족산 까리파스 축제, 제1회 교구장배 축구대회, 제9회 교구장기 테니스 대회에 대한 구체적 진행사항을 논의하고 각 지구회장을 통해 지구의 소식을 듣고 분과장들의 계획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올해 회장단 연수회는 지역별로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 한국청년대회 출발 전야미사 참석



▲ 김윤성 대전평협 회장

김윤성 요한비안  
네 대전평협 회장  
은 8월 17일 성남동  
성당에서 개최된  
대전교구 한국청년  
대회 출발 전야미  
사에 참석해서 류  
근석 청소년부장과  
교구 청년들을 격려했다.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07 상임위원 부부 워크숍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이용기 요한 비안네, 담당사제 김율석 마태오 신부)는 8월 4일 조환길 타대오 총대리 주교와



▲ 상임위원 부부 워크숍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율석 담당사제가 함께 한 가운데 상임위원 부부 워크숍을 청도 무릉도원에서 개최했다. 매년 여름 방학을 계기로 교구 평협 상임위원 부부가 함께 모여 당해연도의 업무와 행사를 점검, 평가해 보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행사를 준비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했다. 이 간담회에는 상임위원 부부 등 30명이 참석해 ‘2007 대구평협’ 특집호 제작에 따른 시안 검토와 원고제출 단체 선정과 단체별 행사 내용 등을 검토했다.

또 이날 모임에서는 8월에 영명축일을 맞이한 이용기 회장과 양해동, 임경수, 박병후, 김진원 상임위원들의 축일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노인복음화대회 행사 취소 설명, 8월 5일 주일 최영수 대주교 팔리움 수여 축하 미사참여 권유 등이 있었다.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교구 설정 50주년 청소년신앙축제 격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이정우 마르티노, 담당사제 황철수 바오로 주교)는 8월 8일 오후 교구 청소년사목국(국장 임형락

이냐시오 신부)이 주관해 부산교구 설정 50주년 기념 청소년신앙축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십자가경배 및 퍼포먼스 남천성당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 십자가의 길 기도로 시작해 저녁 10시까지 긴 시간동안 개최됐는데, 평협에서는 11차에 걸쳐 진행되는 전체 경배에는 참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주교좌 남천성당에서 실시된 십자가경배 및 퍼포먼스에 참석한 것이다. 부산평협 이정우 마르티노 회장은 약 1년 여 동안 기획하고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았던 청소년사목국 부국장 강현철 펠릭스 신부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청소년 신앙축제 십자가 경배 모습

## 평신도사도직신앙학교 2007 총 동문의 날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신앙학교(사도회 회장 김종일 돈보스코, 교장 전동기 유스티노 신부)는 8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남 양산에 위치한 성 정하상바오로 영성관에서 총동문의 날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기도하며 공부하라’는 모토 아래 1년 과정으로 실시된 신앙학교는 평신도사도직 수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부산교구에서는 선교사목국 주관으로



▲ 평신도사도직신앙학교 2007 총동문의 날 행사에 참가한 동문들이 소망을 적은 풍선을 날리고 있다.

13년째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1,200여명의 동문을 배출했으나 이날 행사에는 약 200여명의 동문들이 참가해 “말씀과 함께 친교와 일치 한마당”의 주제로 친교와 우정을 나누었다.

부산교구 평협 이정우 마르티노 회장은 축사에서 “따라가는 수동적인 평신도가 아니라 앞서서 끌어가는 능동적인 평신도사도직의 봉사자가 되자”고 격려했다.

### 교구민 화합과 일치를 위한 지구별 워크숍

부산교구 평협은 교구설정 50주년을 기념해 교구민 화합과 일치를 위한 워크숍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구별로 11차례에 걸쳐 나눠 개최되는 이 워크숍은 부산교구의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앞으로 21세기에 걸맞은 본당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비전을 성직



▲ 제8지구 주교좌 남천성당의 특강모습

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대화하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로 간담회와 세미나 형식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 달 6일 성분도 은혜의 집에서는 5지구 소속 사제 및 신자들이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난 13일 야음성당에서는 9지구 소속 본당이, 16일 가야성당에서는 6지구 소속 본당이 그룹 별 세미나를 열었다. 전체 행사기획과 진행을 부산평협 사무국과 청소년분과위원회가 주관해 실시했다.

### 고 정명조 주교 묘지방문 위령기도



▲ 고 정명조 주교의 묘지를 찾은 부산평협 임원들이 위령기도를 드리고 있다.

부산평 협 임원 들은 가 톨릭경제 인 회 와 함께 8월 25일토요 일 고 정

명조 아우구스티노 주교의 영명축일(8.28)을 앞두고 교구 성직자묘지 정주교 묘소를 방문해 위령기도를 드리고 성인들과 천사들의 도우심으로 하느님나라에 들기를 빌었다.

###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순교자 현양비 참배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영근 라우렌시오, 담당사제 최광조 프란치스코 신부)는 ‘하느님의 종’ 증거자 최양업 신부의 시

복 시성과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 시성을 위해 순교자 성월이 시작되는 9월 1일 오후 4시, 1시간여에 걸쳐 청주시내 성안동 중앙공원에 있는 순교자 현양비 앞에서 현양비 참배 행사를 마련했다.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하루 종일 억수 같이 퍼붓는 비도 아랑곳하지 않고 순교자 현양비를 참배한 250여 명 신자들은 진지한 자세로 참배 행사에 참여해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사제의 시복 시성과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 시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참배예식은 목주의 기도 ‘고통의 신비’를 시작으로 순교자 소개를 한 다음 복음 낭독, 묵상, 주모경, 시노드 한마음 기도를 바친 후 장인산 베르나르도 총대리 신부의 강복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내년 9월 첫 토요일에 다시 모여 기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날 행사를 마쳤다.

2001년 신유박해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순교자 현양비를 건립한 청주교구 평협은 매년 9월 첫 토요일을 ‘순교자 현양비 참배의 날’로 정하고, 순교자들의 삶으로부터 신앙의 유산

을 이어받으려는 다짐을 굳게 하고 있다.

### 순교자 현양비 건립 과정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순교자 현양비를 건립하기 위해 2001년 9월에 전주 가톨릭예술단을 초청해 국악 뮤지컬 ‘님이시여 사랑이시여’를 2회에 걸쳐 공연했다. 교구 평협은 이 공연으로 모금한 수익금 3,700만원을 장봉훈 가브리엘 교구장 주교 영명축일에 청주, 충주 순교 현양비 건립 기금으로 전달했다. 교구에서는 이를 계기로 순교자 현양비 건립을 추진해 2002년에 충주 관아공원과 청주 중앙공원에 현양비를 건립하고 축복했다.

2001. 9. 2 2001년 신유박해 순교 200주년 특별공연 국악 뮤지컬 ‘님이시여, 사랑이시여’ 초청 공연(청주예술의 전당). 공연 이익금 3,700만원을 순교자 현양비 건립 기금으로 봉헌

2002. 9. 13 충주 순교자 현양비 제막 및 축복식

2002. 9. 26 청주 순교자 현양비 제막 및 축복식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4위 중에 청주에서 순교하신 원시보 야고보, 배관겸 프란치스코, 김사집 프란치스코, 오반지 바오로, 장 토마스 등 다섯 분이 포함되어 있다.

충북 출신 24분의 순교자 중 시복 시성이 추진되고 있는 분은 이국승 바오로, 김원중 스테파노, 송 베네딕토, 송 베드로 등 네 분이다.

### 가정성화부장 연수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7월 7일(토) 청주시 북문로 3가 가톨릭회관에서 본당 가정



▲ 폭우 속에서도 순교자 현양비 참배행사에 참여한 신자들

성화부장 연수를 실시했다. 평협이 주관한 본당 임원 다섯 번째 연수인 이날 가정성화부장 연수에는 모두 83명이 참석해 송열섭 가시미로(청주교구 연수원장, 주교회의 생명31운동 본부 총무) 신부의 특강 등을 통해 가정성화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청주교구 시노드 의제로 확정된 '가정'의 여러 측면을 심도 있게 다루었다.

송열섭 신부는 특강에서 교회에서의 가정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고, 생명 존중 운동의 필요성과 실천 방안을 제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본당에서 대부분의 가정 성화부장이 ME 대표 부부들이 맡고 있어, 연수는 ME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로 마무리지었다.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15대 담당사제 김종주(루카) 신부 부임

8월 31일 광주대교구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 광주평협 담당사제 김종주 루카 신부

김종주 루카 신부가 교구 사목국장으로 전보돼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와 여성위원회 담당사제를 겸하게 됐다.

이날 광주대교구 평신도사

도직협의회(회장 정기수 스테파노)와 여성위원회 임원들은 교구청 사목국실에서 그동안 평협을 담당해온 황양주 안토니오 신부를 배웅하고, 새로 부임하는 김종주 신부를 맞아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 성모님께 대한 봉헌미사



▲ 봉헌자들에게 갈색 스카풀리를 걸어주고 있는 모습

광주대교구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회장 김재중 요셉, 담당사제 초기원 에밀리오 신부)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주간 봉헌준비를 위한 성모신심 세미나를 8월 6일 광주 가톨릭센터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자신을 되돌아보고 예수님이 성모님을 바로알고 준비를 해온 230여명의 회원들은 이날 봉헌미사를 통해 온전히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했다.

## 여성위원회 하계 임원연수회



▲ 흑산도성당 앞에서 기념촬영

광주대교구 여성위원회(위원장 이미현 실비아, 담당사제 김종주 루카 신부) 임원 11명은 8월 20-21일 신안 흑산도성당으로 임원연수회를 다녀왔다. 고요함속에 머물면서 유기종 요셉 흑산도성당 주임신부의 좋은 말씀으로 다시금 힘을 얻는 시간을 보냈다.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임원연수회 개최



▲ 임원연수회 미사에서 강론하는 전주교구장 이병호 주교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서동호 바오로, 담당사제 유장훈 요셉 몬시뇰)는 지난 8월 25일 새 교구청 강당에서 각 본당 사목회 임원과 교구 제단체장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는 교구장 이병호 빙첸시오 주교의 특강과 교구 발전을 위한 건의, 이병호 주교 주례의 미사봉헌, 새로이 교구 총대리에 임명된 평협 담당사제 유장훈 몬시뇰의 특강, 요한 루갈다제 행사계획 설명, 지구별 회합 등으로 진행됐다.

이병호 주교는 이날 특강에서 멕시코에서 개최된 남미 선교사회와 필리핀 사목방문 등 한 달여간의 외국순방에 대해 설명하며 “잉카나 아즈텍 문화의 인신제사 풍습에 대해 들으면서 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며 “신에 대해 인간을 벌하시는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조금씩 존재하게 마련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인간을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자”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교구 총대리로 취임해 평협 담당사제가 된 유장훈 몬시뇰의 ‘평신도 사도직의 자세와 역할’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오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평협 주관으로 새 교구청 광장에서 개최될 제12회 성체현양대회와 제7회 요한루갈다제에 대한 구체적 행사계획 소개와 설명을 통해 많은 신자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임원 친교행사



▲ 편안한 분위기에서 파견미사를 집전하는 조정오 신부

전주  
교구  
평신  
도사  
도직  
협의  
회는  
자문위

원,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임원들의 부부 동반 친교행사를 7월 16일과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고산 금곡 자연농원에서 가졌다. 조정오 당시 총대리 신부와 함께 한 이번 행사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특히 임원 부부가 함께하는 생활이어서 교회봉사에 대한 서로의 관심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

조 신부는 파견미사 강론을 통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타기 대회가 열렸다. 어떤 참가자가 줄을 타고 강을 무사히 건너자 밑에서 가슴을 졸이던 구경꾼들이 환호와 박수를 치면서 열광했다. 그 참가자는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오던 길을 다시 가겠다고 하자 일순간에 조용해졌다. 그 순간 어

편 아이가 손을 들고 자기가 등에 업혀서 가겠노라고 했다. 그 두 명은 외줄을 타고 무사히 강을 건넜다. 돌아와서는 어느 기자가 ‘어떻게 용기를 내서 등에 업혀 가게 되었는가’ 하고 아이에게 문자 아이는 당당하게 ‘그 분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찌 아버지를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하고 대답했다. 이처럼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1박 2일의 자연과 함께하는 일정을 통해 평협 임원 부부들은 영적으로 성숙되고 봉사자의 참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 임원 태인공소 방문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임원 10명은 지난 6월 27일(수) 교구 내 신태인성당 관할 태인공소에서 공소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다. 마침 가톨릭 대학생 농활단이 봉사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청장년, 그리고 도시민과 농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으로 뜻 깊은 미사였다. 김봉술 주임신부는 강론에서 “젊은이들은 무더위에 땀을 씻는 샤워는 알되 등목은 모를 거라며 세대 간의 차이를 극복하는 길은 현장체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서동호 전주교구 평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의 터전인 땅은 정직하고 소박하기 때문에 주는 대로 겨룰 수 있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의 노력을 다하고 땀의 대가를 겸허히 받아들이자”고 당부했다. 서 회장은 또 “자연을 바로 체험하고 생명의 존귀함을 자연에서 배우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농활활동이 의례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땀의 참된 가치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구 평협 임원들은 작은 정성으로 수건과 음료수를 전달하면서 위로의 인사도 함께 전했으며, 7월 1일(일)에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으로 농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신태인성당을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 한국평협 회원 단체 소식

###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 일치를 위한 정치인 모임 3돌 행사

마리아사업회(대표 엄선자 헬레나, 칼로이 아단)는 일치를 위한 정치인 모임 3주년 행사를 위한 정치인 모임 3주년 행사의 하나로 로마 새인류 비서국에서 정치계 사무국 책임과 범람을 위해 MPPU(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책임을 맡고 있는 루치아 프론자 크레파즈(Lucia Fronza Crepaz, 52) 초청 강연회를 마련하는 등 세상 안에서의 사도직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루치아 크레파즈 초청 일치를 위한 정치인 모임 3주년 행사

오는 9월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로

운 도전, 새로운 전망’이라는 제목의 이 강연에서 루치아 크레파즈는 포콜라레 운동의 목표인 보편적 형제애와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 다루게 된다. 소아과 의사인 루치아는 이탈리아 기민당과 국민당 소속으로 두 차례(1987~1994)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교회의 사회교리 석사과정(Masters in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을 밟고 있다.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은 포콜라레 운동의 사회적 표현 중 한 분야로서 1996년 이태리 정치인들 사이에서 시작돼 현재 유럽과 남미 등지에서 3,000여 명의 정치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은 각자가 속한 정당의 이념에 충실하면서 인간이 지닌 보편적인 가치들, 곧 평화, 생명, 정의, 자유, 형제애, 자연 보호 등의 가치들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추구한다. 이들은 상대편의 정당을 자신의 정당처럼 존중하고 사랑하고자 하며, 입법과 정책 수립 등 모든 정치 활동에서 먼저 국민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나라 일치를 위한 정치인 모임

우리나라에서는 ‘일치를 위한 정치 운동’의 준비 단계로서 잠정적으로 ‘일치를 위한 정치인 모임’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곧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으로서의 출범을 하게 될 예정이다. 2004년 9월 여의도에서 여당과 야당에 속한 열 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몇 명의 정치인들이 첫 모임을 가졌다. ‘정치는 사랑 중의 사랑’이라는 포콜라레 운동 창시자 끼아라 루빅의 말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며 시작한

이 모임은 현재 25명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정치학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2005년 9월에는 정당과 종교, 정치적 이해를 뛰어넘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참된 정치를 펴나가는 데에 협력하며 일치를 향해 나아가자는 이 모임의 메시지를 동료의원들에게도 전달하기 위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1주년 모임을 가진 바 있다.

2006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일 아침에는 2주년 기념행사로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국회 내 4개 종교 지도자들과 신자의원, 단체들과 함께 연대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국회 연합 조찬 기도회’를 가졌다. 임채정 국회의장, 이상득 국회 부의장, 4당 대표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는 국회 내 4개 종교 신자 국회의원 40여 명과 150여 명의 단체 회원들이 함께 했다.

2007년 2월에는 ‘일치를 위한 정치인 모임’의 회원 의원 4명이 이태리 로마에 있는 포콜라레 운동 세계 총본부와 ‘일치를 위한 정치운동’ 세계본부를 방문했고, 6월 8일에는 포콜라레 운동 세계 총본부의 ‘범람’ 대표인 베라 아라우조(Vera Araujo)의 방한을 맞아 ‘일치를 위한 정치인 모임’ 주관으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극화 시대의 새로운 도전 – 형제애’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등의 학자들과 가톨릭 경제인회의 임원 경제인들, 평신도사도직협의회의 임원들도 함께 참석했다.

## 꾸르실료 한국협의회

### 꾸르실료 40주년 전국 도보 성지순례

#### 10월 2일까지 40일간… 제주 황사평~서울 절두산 순교성지

꾸르실료 한국협의회(주간 심재기 바오로, 담당사제 서유석 사도 요한 신부)는 한국 꾸르실료 40주년을 맞아 지난 8월 24일(금)부터 오는 10월 2일(화)까지 40일 일정의 전국 도보 성지순례에 나섰다. 꾸르실료 운동의 지나온 날을 돌아보며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꾸르실리스타(Cursillista · 3박4일의 꾸르실료 교육 과정을 체험한 사람)들의 성화(聖化)를 위한 기도의 순례다. 서유석 신부와 각 교구 꾸르실료 대표자 등 30여 명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다.

#### 전국 각 교구 주요 순교성지 도보 성지순례

제주 황사평 순교성지를 시작으로 한국 천주교회 첫 희생자인 김범우(金範禹) 토마스의 묘소(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한티 순교성지(경북 칠곡군 동명면), 나주 무학당 순교성지, 치명자산 성지(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무명 순교자들의 생매장지 해미 성지(충남 서산시 해미면), 성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 솔뫼(충남 당진군 우강면), 순교자 묘가 있는 공세리 성당(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죽산 성지(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죽림동 성당(춘천시 죽림동), 황사영(黃嗣永) 묘소(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강화 갑곶돈대, 새남터 순교성지(용산구 이촌2동), 절두산 순교성지(마포구 합정동) 등 전국 각 교구 주요 순교성지와 사적지를 걸어서 순례한다.

순례단은 무명 순교자와 103위 성인의 순교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모든 가정의 성화와 일치를 위해 기도하며 현대 사회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선택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게 된다.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월은 ‘순교자 성월’이라 순례의 의미가 더 크다.

전체 일정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도 각 교구별 이동 일정에 맞춰 부분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제주교구-마산교구-부산교구-대구대교구-광주대교구-전주교구-대전교구-수원교구-안동교구-청주교구-원주교구-춘천교구-인천교구-의정부교구-서울대교구의 순으로 이동한다.

#### 10월 3일, 40주년 기념 ‘제15차 전국 울뜨레야’

성지순례를 마친 다음날 10월 3일(수)에는 꾸르실료 한국 도입 40주년 기념 ‘제15차 전국 울뜨레야(꾸르실료를 체험한 이들의 모임)’가 서울 잠실 실내종합체육관에서 열린다. 주제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복음 16장 33절).

##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 평의원 연수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단장 팽종섭 그레고리오,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는 7월 14일과 15일 1박 2일에 걸쳐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에서 세나뚜스 평의원 연수를 실시했다. 세나뚜스 평의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

수는 2008년도 레지오 마리애 계획을 위한 것으로 직속 꼬미씨움 간부 87명이 참석했다.

팽종섭 그레고리오 세나뚜스 단장의 ‘우리 레지오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시작한



▲ 의정부 한마음 수련원에서 개최된 세나뚜스 평의원 연수

주제 강연에서 단원들의 활동 부진, 간부의 사명의식 부재, 고령화, 청소년 단원의 육성 등 현재 한국 레지오의 제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부탁했고, 이에 대한 열띤 토의와 발표가 있었다.

다음날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민병덕(비오) 신부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중 ‘교회에 관한 교의현장’과 교황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강의를 들었다.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18세기, 또 그 이후의 특징 ‘변화’를 ‘인격화, 사회화, 세속화, 우주 지배’로 규정하고, 신앙을 ‘일치를 향한 여정’인 사귐의 신비로 밝히는 등, 심도 있는 해설로 평의원들의 영성을 한층 높일 수 있었다.

## 꾸리아 간부들에게 직책교육 실시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는 7월 24일(화) · 25일(수) · 26일(목)의 3일에 걸쳐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세나뚜스 직속 꾸리아 간부들인 부단장 307명, 서기 330명, 회계 309명 등에게 차례로 직책교육을 실시했다.

당일 저녁 7시 시작기도로 시작한 교육에서 부단장 교육은 세나뚜스 부단장인 한관섭 미카엘 형제가 ‘레지오 마리애 관리와 운영’에 대해, 서기는 세나뚜스 서기인 정지오 세례자 요한 형제가 ‘꾸리아 서기의 임무와 종합 및 사업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해, 그리고 회계교육은 세나뚜스 회계인 한희운 아네스 자매가 ‘꾸리아 회계의 업무와 관리’에 대해 강의해 9시 30분에 ‘마침기도’를 바침으로써 끝맺었다.



▲ 꾸리아 간부 직책교육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 참가자들

## 동정

◎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서동호 바오로 회장은 지난 6월 27일 (가칭) 모악산 정상회복 도민회의 결성과 관련해 불교, 개신교 대표들과 함께 공동대표로 선임됐다. 서 회장은 또 8월 20일 전북 경제 살리기 운동 범 도민협의회 상임위원으로 위촉받았다.

## <교황님의 가르침>

다음은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8월 26일 여름철 교황 별장 카스텔 간돌포에서 삼종기도 때 하신 강론 전문이다.

2007년 8월 26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삼종기도 강론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의 전례도 우리를 일깨워 주는, 하지만 우리를 불안하게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여행 길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주님, 구원 받을 사람은 적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루카 13, 23-24). 이 “좁은 문”은 무엇을 뜻합니까? 왜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혹시 얼마 안 되는 선택 받은 사람들만 지나갈 수 있는 길일까요?

사실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던 사람들의 이러한 사고 방식은 잘 살펴보면 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특권이나 안전을 얻는 원천으로 해석하려는 유혹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은 “좁습니다”. 특권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만 ‘좁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헌신, 희생, 이기심 억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 우리가 지상 순례를 하는 동안 대비해야 할 미래를 생각하도록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마련하신 구원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모든 사람을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바쳐 형제들을 섬기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본받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상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조건은 유일하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 받는 기준은 그럴싸한 특권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에 따른다는 점을 한번 더 상기시켜 주십니다. ‘나쁜 짓 하는 자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반면 희생을 감수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정의를 추구한 사람들은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처럼 가짜 공로를 뽑내며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루카 13, 26)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과 참된 친구됨은 삶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착한 마음으로, 겸손함, 온유함과 자비로움, 정의와 진리에 대한 사랑, 평화와 화해에 대한 진지하고 성실한 투신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그분의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여권’입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우리도 작아지도록, 즉, 예수님이처럼, 그분의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이신 마리아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지니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리아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신 첫 번째 분이셨고 우리가 며칠 전 기념한 대로 영광 속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하늘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문’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그분께 청합시다.

## 2007년도(제24회) 가톨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숨어 있는 가톨릭대상의 주인공을 찾아주십시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2007년도 가톨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한국평협은 세상 속에서 삶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묵히 실천해온 숨은 인사를 찾아 ▲사랑 ▲정의평화 ▲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가톨릭대상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시상하고 있는 가톨릭대상은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복음적 활동으로 현세질서에 이바지한 모범적 시민에게 시상함으로써 인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작은 그리스도', '숨은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가톨릭대상은 가톨릭 신자에 국한하지 않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고 신앙에 관계 없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작은 그리스도를 찾아 우리 삶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과 정의평화, 문화 창달에 노력해온 평신도와 일반 시민들 중에서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랑 · 정의평화 · 문화 3개 부문
- ◎ 대 상 : 종파를 초월한 55세 이상으로 개인 및 단체(사도직 단체 제외)
- ◎ 추천방식 : 소정의 추천양식 또는 일반적인 추천양식
- ◎ 마 감 : 2007년 10월 31일
- ◎ 시상 일 : 2007년 12월 중
- ◎ 상 금 : 사랑 · 정의평화 · 문화 각 부문 대상 300만원

###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00-809) 서울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 777-2013 757-7851 727-2513 / FAX 778-7427

Homepage: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